

안녕하십니까,

대한산업보건협회
제9대 회장
김준연입니다



요즈음 웬만한 모임에 가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5G 등의 요소를 초연결하고 융합하여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지능화하는 개념입니다.

우리 대한산업보건협회도 이러한 4차 산업혁명에 특화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 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60여 년에 걸친 역사와 전통에 뿌리하고 있으며,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산업보건 서비스에 관한 노하우와 빅데이터를 상당량 축적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건강검진, 작업환경측정, 보건관리 등의 산업보건사업은 물론 헌혈 및 교육사업도 확대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주요지역에 위치한 18개의 지역본부·산업보건센터에 다양한 분야의 산업보건 전문가가 포진하고 있어 이들 모두를 잘 연결시키고 융합함으로써 모름지기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산업보건의 중심기관으로 발돋움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협회는 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어려움을 딛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건강 검진

사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관련 국가예산의 상당부분이 암 예방 및 관리 사업에 할당되어 있어 우리 협회도 이러한 정책방향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사업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제가 직무수행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다섯 가지 운영방침을 바탕으로 회장의 직무를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경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립'으로서, 협회 내부의 모든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고 올바른 절차를 거쳐 수립되어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역량의 고도화 및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 힘쓸 것입니다. 기업진단과 협회 구성원의 요구를 바탕으로 사업의 내실화를 추구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등의 보건 관련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상생의 노사문화 고양'을 위해서 특히 애쓰고자 합니다. 노사간 대화와 상호협력을 통해 상생의 고용문화 및 노사문화가 더욱더 공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넷째, '사회공헌 및 대외활동 강화'를 위해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사회공헌활동을 더욱 확대하여 협회의 이미지를 더욱더 긍정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협회가 주관하는 산업보건학술제 등 다양한 학술활동이 한층 더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조직관리의 합리화'를 위해 의사결정과정을 보다 간소화하고 효율적으로 하겠으며, 특히 고객을 직접 대하는 직원들의 역량을 끌어올리고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중지를 모아 변화를 모색할 것입니다.

회장으로서 저는 우리 협회의 1,500여 구성원들이 더 큰 보람과 애정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며, 아울러 우리 협회에서 근무했던 분들과 협회와 인연을 맺은 기관 혹은 단체들이 우리 협회에 관심과 사랑을 지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 김준연